

7년 만에 한-중 운수권 확대

- 한-중 항공회담 통해 여객 주 56회, 화물 주 14회 증대 합의
- 인기 중국 노선 증편 기반 마련, 지방공항 노선도 확대

- 중국을 오가는 국민들의 항공편 선택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.
정부는 한-중 항공회담을 통해 상하이·광저우 등 수요가 높은 노선의 운수권을 확대하고 지방공항 중국 노선도 늘리기로 했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5월 27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 한-중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을 주 70회 증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.
 - * 여객 주 608회→주 664회(+56회), 화물 주 54회→주 68회(+14회)로 총 70회 증대
- 이번 운수권 확대는 양국이 지난 '19년 이후 7년 만에 증대에 합의한 것으로, 최근 한-중 간 인적·물적 교류 확대*에 발맞춰 양국 간 국제노선 증편 기반을 마련**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.
 - * 1분기 한-중 여객실적은 약 439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(414만명) 이상 회복
 - ** (노선 확대 절차) 운수권 합의 → 항공사에 배분 → (항공사)슬롯확보 → 인허가 → 취항
- 특히 그간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, 양국 모두 기존에 설정된 운수권을 모두 사용하고 있어 증편이 곤란했던 인천-상하이·광저우 등 노선에서 운수권이 증대됨에 따라,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.
- 한편, 부산, 청주 등 우리 지방공항에서 중국의 광저우·충칭·선전 등 주요 10개 도시*로 가는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도 함께 증대(주14회)되어, 우리 지역민의 이동편의 제고, 지방공항 활성화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유입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 - * 광저우·청두·선전·충칭·쿤밍·시안·우루무치·하얼빈·선양·엔지 등 10개
 - ** 기존 지방전용 운수권은 190개(지방-베이징-상하이 103, 지방-베이징-상하이 외 도시 87)

- 화물의 경우 양국 간 증가하는 화물운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중국 내 주요 4개 화물허브공항(톈진·정저우·어저우·허페이)과 우리 공항을 연결하는 운수권을 주 14회 증대하였다.

< 운수권 증대 노선별 상세내용 >

	노선	기존	증대
여객	인천-베이징	주45회	주52회 (+7)
	인천-상하이	주56회	주63회 (+7)
	인천-광저우	주21회	주28회 (+7)
	인천-다롄	주21회	주28회 (+7)
	인천-청두	주14회	주21회 (+7)
	인천-하얼빈	주14회	주21회 (+7)
	한국 지방- 중국 베이징·상하이 외 도시	주87회	주101회 (+14*)
화물	한국 전체- 중국 화물허브 공항	10개 공항 주54회	12개 공항 주68회 (+14**)

* 한국 지방 ↔ 중국 광저우·청두·선전·충칭·쿤밍·시안·우루무치·하얼빈·선양·옌지 10개 도시

** 한국 전체 ↔ 톈진·정저우·어저우·허페이 4개 도시(어저우·허페이는 이번에 신설)

- 지난 4월말에 진행된 정기 운수권 배분 시 중국 운수권에 대한 국적 항공사들의 관심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, 이번에 확보한 운수권도 기 배분된 운수권 관련 취항준비 상황을 보아가며 하반기 내 조속히 배분, 신속한 추가 증편을 지원할 계획이다.

- 국토교통부 이소영 항공정책관은 “최근 양국 간 교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항공회담을 통해 시의적절한 운수권 증대를 이루어낸 것은 매우 고무적”이라고 평가하며,

- “이번 합의를 통해 중국인 방한 관광 촉진,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과 수출입 기업의 편의 제고뿐만 아니라, 우리 항공사들의 중국 시장 진출도 보다 활발해지는 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	책임자	과 장	차상헌 (044-201-4207)
		담당자	사무관	최연준 (044-201-4211)
			주무관	박초룡 (044-201-4210)

